

150km ‘절박함’ 던져 선발 잡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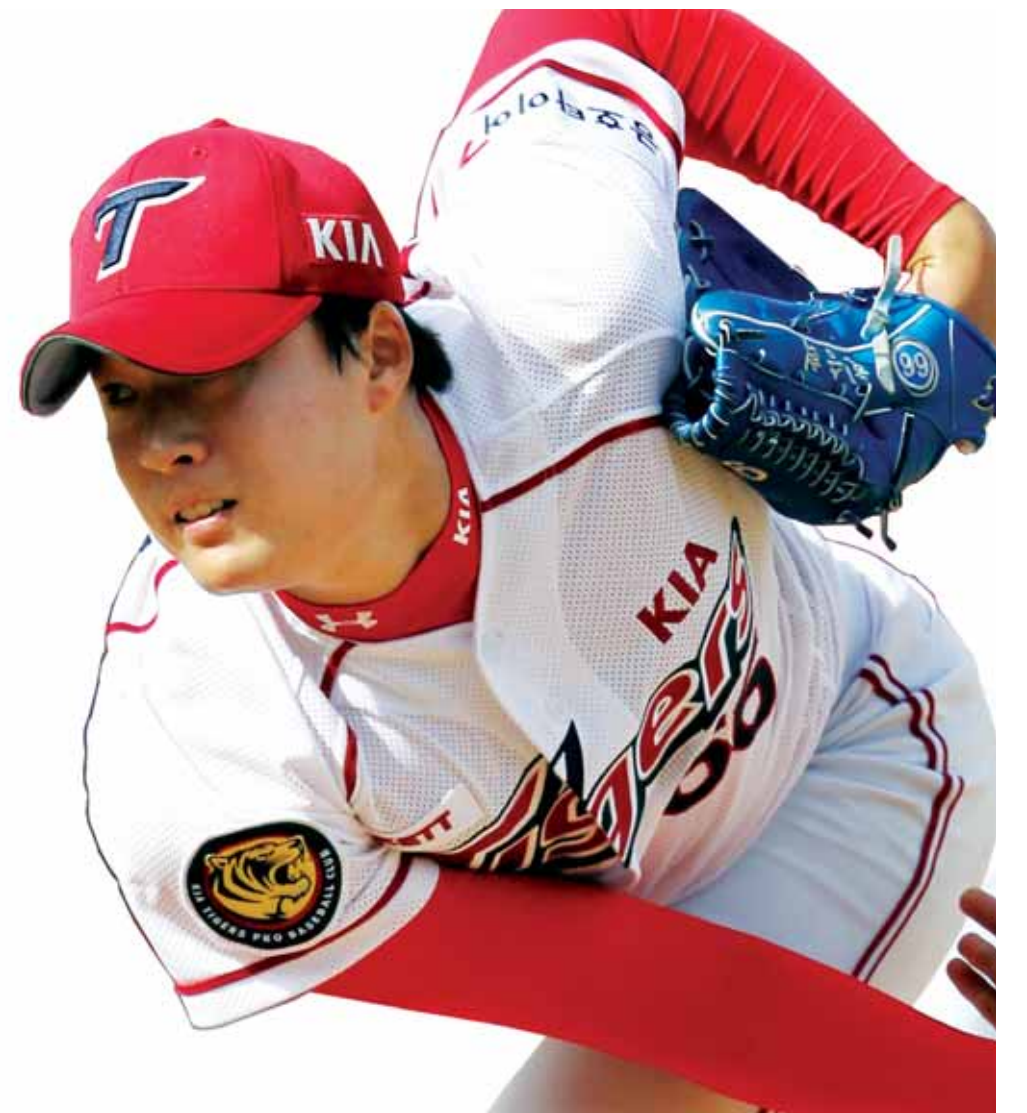
KIA 투수 한승혁

신인 최대어 주목받다 부상·재활로 늦감이 프로 시작
 을 시즌 3차례 출격...과감한 피칭으로 자신감 찾아

“피칭 어땠어요?”라는 질문에 대한 KIA 투수 한승혁의 답은 똑같다.
 “좋아지고 있는 중입니다”가 그의 답이다. KIA 마운드의 막내 한승혁이 실패를 통해 배워가고 있고 성공을 통해 자신감을 키워가고 있다.
 좋아지고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한승혁의 가장 솔직한 답변이다. 한승혁은 좋아지고 있다. 그리고 그 대답에는 마운드에 오를 때마다 더 강해지고 좋아지기를 바라는 자신의 간절한 바람이 담겨져 있다.
 한승혁은 선동열 감독이 시즌 시작에 앞서 많이 성장한 투수로 꼽은 선수 중 하나다. 제구가 좋아지면서 안정감이 생겼다는 설명이었다. 또 부상에 대한 부담에서 벗어나면서 의식하지 않아도 원래 가지고 있던 스피드가 나오고 있다.

한승혁은 덕수고 재학시절 150km 넘는 공을 뿌리며 최대어로 주목받았던 선수다. 입단에 앞서 팔꿈치 수술을 하면서 뒤늦게 프로 생활을 시작한 그는 아직 강렬한 인상을 남기지 못하고 있다. 올 시즌은 한승혁에게 기회의 시간이자 땀을 보여줘야 하는 절실한 시간이다.
 마땅히 필승조를 꾸릴 수도 없는 팀 여건은 한승혁에게는 절호의 기회다. 경쟁에 대한 부담을 덜고 한승혁 자신의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다. 한편으로는 한승혁을 보여줘야 하는 시간이기도 하다. 그동안 부상과 재활, 부진 속에 자기 자리를 만들지 못했다.
 3월30일 삼성전에 첫 출격한 한승혁은 개막 이후 8연전에서 3차례 출격했다. 선발 박경태가 일찍 무너졌던 3일 NC와의 경기에서는 4.1이닝 3피안타 3볼넷 4

탈삼진 무실점을 기록했다. 이날 한승혁은 긴 이닝을 소화하면서 다양한 가능성을 보여줬다. 6일 두산전 기록은 1이닝 2피안타 2탈삼진 2실점으로 깔끔하지는 못했지만 지난해보다는 더 과감해진 피칭이 눈에 띄었다.
 지난해 2군에서 선발수업을 받으며 공에 힘이 붙었다. 얼마 전 슬라이더 그립도 바꿨다.
 한승혁은 “팔꿈치 수술을 한 뒤 고등학교 때와 다르게 슬라이더 그립을 잡게 됐다. 이제 부상에서도 벗어나면서 원래 방식대로 실밥에 걸쳐서 비스듬하게 잡고 있다. 변화를 준지는 얼마 되지 않지만 던지던 기억이 있어서 빨리 적응이 되고 있다. 커터 식으로 공이 더 빠르게 가고 회전도 좋아진 것 같다”며 “변화구 승부가 좋아지면서 마운드에서 자신감이 붙는 것 같다. 야구는 멘탈 스포츠라서 자신감을 찾으려고 한다. 매일 좋아지고 있는 중이고 더 좋아질 것이다”고 말했다.
 지난 겨울 한승혁은 올 시즌 1차 목표 50이닝을 예기했다. 부상에서 돌아온 지난 2년은 32.1이닝을 소화하는데 그쳤다. 경기 운영 감각을 찾고 자신감을 채우기 위해 목표 50이닝이다. 개막 후 세 경기에서 한승혁이 책임진 이닝은 6.1이닝. 50이닝 이후 한승혁이 어떻게 진화할 지 궁금하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윤석민 등판 또 연기

우천으로 하루 미뤄

윤석민(볼티모어)의 미국 도전기가 험난하다. 윤석민의 등판이 또 연기됐다. 이번에도 비를 만났다.
 미국 프로야구 볼티모어 오리올스 산하 트리플 A 노포크 타이즈에서 시즌을 보내고 있는 윤석민은 8일(한국시간)으로 그윈넷 브레이브스(애틀랜타 브레이브스 산하)와의 경기에서 선발 등판할 예정이었다.
 미국 진출 이후 선발로 첫 정식 등판. 하지만 이날 이른 시간부터 비가 계속되는데 기운까지 쫓겨가면서 경기 취소됐고, 기대했던 마운드에 오르지 못했다.
 예정됐던 등판이 한 차례 연기됐던 터라 윤석민의 마음은 더 급하다. 윤석민은 7일 샬럿 나이트(시카고 화이트삭스 산하)와 경기에서 선발 테스트를 받을 예정이었지만 메이저리그 일정 탓에 등판이 8일로 하루 미뤄졌다.
 시범경기에서도 두 차례나 비를 만나 실전을 제대로 소화하지 못한 윤석민에게는 험난한 도전이 계속되고 있다.
 윤석민은 9일 오전 7시35분에 열리는 그윈넷과의 경기에서 선발로 나선다. /김여울기자 wool@



이것이 슬램덩크 미국대학농구 센터키 와일드캐츠의 가드 앤드류 해리스(왼쪽)이 8일 AT&T 스타디움에서 열린 코네티컷 허스키스와 챔피언십 경기에서 슛을 시도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신수, 장타 시동 보스턴전 세번째 멀티히트...첫 3루타

‘추추 트레인’ 추신수(32·텍사스 레인저스)가 텍사스 이적 후 첫 3루타를 때리며 장타 생산에 시동을 걸었다.
 추신수는 8일(한국시간) 매사추세츠주 보스턴의 펜웨이파크에서 열린 보스턴 레드삭스와의 방문경기에서 1번 타자 좌익수로 출전해 삼진 2개를 빼앗겼으나 3루타 하나를 포함해 4타수 2안타를 기록했다.
 시즌 세 번째 멀티히트(한 경기 안타 두 개 이상)를 기록하며 3경기 연속 안타 행진을 벌인 추신수의

타율은 0.308로 뛰어올랐다.
 추신수는 특히 이날 시즌 첫 장타를 3루타로 장식, 통산 세 차례 20홈런-20도루를 달성한 ‘호타준족’의 실력도 드러내기 시작했다.
 추신수가 3루타를 때린 것은 통산 22번째로, 신시내티 소속이던 지난해 9월 25일 뉴욕 메츠전에서 기록한 이후 11경기 만이다.
 추신수는 1회 보스턴 선발 존 레키의 시속 150km 직구에 방망이를 내지 못해 스탠딩 삼진으로 물러난

다. 그러나 3회 레키와의 두 번째 대결에서 상대를 공략했다.
 2사 주자 없는 상황에서 레키와 풀카운트 신경전을 벌인 추신수는 7구째 시속 147km 직구가 높이 들어오자 놓치지 않고 배트를 돌렸다.
 시원하게 날아간 타구는 글러브를 뚫으며 달려간 중견수 키를 넘겼고, 추신수는 그 사이에 3루까지 내달렸다.
 그러나 후속타가 없어 득점하지는 못했다.

5회에 다시 스탠딩 삼진으로 물러난 추신수는 1-2로 뒤진 8회 선두타자로 나와 안타를 때렸다.
 좌완 크리스 카푸아노와 만난 추신수는 볼카운트 2-2에서 바깥쪽으로 빠져나가는 심커를 결대로 밀어 좌선상 안타를 만들었다.
 펜웨이파크 왼쪽 펜스를 맞히는 2루타성이었지만, 워낙 타구가 빨라 곧바로 좌익수가 중계 플레이에 들어간 탓에 추신수는 1루에서 멈췄다.
 추신수는 이번에도 엘비스 안드루스가 중견수 플라이에 그치고, 프린스 필더가 병살타로 잡힌 탓에 득점하지 못했다.
 텍사스는 찬스를 살리지 못하는 빈공 속에 1-5로 졌다. /연합뉴스